

OPEC, 아시아 석유 갈등 해소

수요 급증 때마다 충분히 공급 ... 2012년 120개 이상 프로젝트 투자

하메드 알-함리 석유수출국기구(OPEC) 의장은 11월28일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에 는 충분한 석유가 공급될 것이라고 발표했다.

UAE 석유장관이기도 한 알-함리 의장은 싱가포르에서 열린 에너지회의에서 “아시아 지역에 석유 수요가 급 증할 때마다 OPEC은 충분히 공급을 해왔다”며 “걸프 지역의 산유국들과 다른 OPEC 회원국들은 아시아의 석 유 갈등을 충족시켜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준비가 돼 있다”고 강조했다.

OPEC 회원국들은 세계의 석유 수요 증가에 대비해 2012년까지 대형 정유공장 건설을 포함해 120개 이상의 설비사업에 1500억달러를 투입할 계획이다.

알-함리 의장은 “설비사업으로 OPEC의 하루 산유량은 500만배럴 이상으로 늘어나게 될 것”이라면서 “현재 여러 대형 복합 정유소들이 건설 중에 있거나 설계 단계에 있다”고 말했다.

또 “OPEC 회원국들은 정유와 송유시설, 저장설비, 석유타미널 등에 막대한 투자를 계속하고 있다”고 덧붙였다.

그러나 OPEC 고위 관계자들은 배럴당 100달러 가까이 치솟은 유가에도 불구하고 “시장에 충분한 석유가 공급되고 있다”는 말만 되풀이할 뿐 증산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.

알리 알-나이미 사우디 석유장관은 “OPEC은 최근 유가의 급등을 깊은 우려 속에 지켜보고 있다”며 “그러 나 세계 시장에는 충분한 석유가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믿고 있고, 석유 재고량도 넉넉한 편”이라고 말했다.

12월5일 UAE 아부다비에서 개최되는 OPEC 총회와 관련해 알-나이미 장관은 “데이터를 보고 나서 OPEC 은 증산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”고 말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 · 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07/11/29>